

올해 교리경시대회 2000명 더 참가한다

초·중·고생 등 8000 명...군장병도 954명 참가

8월 28일 오전 11시 전국에서 치러질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응시자가 지난해 보다 2000여 명 늘어난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경시대회 접수마감 결과, 시험 형태로 경시대회를 치르는 중·고등부 응시자는 3514명, 군장병은 954명, 퀴즈대회 형식의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338명(예선참가 374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7월 27일 밝혔다.

중·고등학생의 응시는 지난해 2619명에 비해 895명이 증가한 것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지난해 방식을 퀴즈대회 형식으로 방식을 탈리한 초등학생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3749명이 예선에 참가했다.

지난해 군중병에서 '군장병'으로

의연을 확대한 군장병 부문에는 전국 22개 군병당 954명이 참가 접수를 완료했다. 군장병들은 중·고등부와 함께 8월 28일 오전11~12시 국방부 원광사를 비롯한 육·해·공군 18개 군병당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른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경시대회는 사찰 및 불자들의 전폭적 관심 속에 급성장하면서 청소년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사찰 및 개별 응시자들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등부 참가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경시대회 관심이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부는 지난해에 비해 916명이 증가, 100여 명이 감소한 중등부와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 중·고등부 참가인원은 서울 1340명, 부산 189명, 대구 565명,



전국청소년불교교리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대전 311명, 광주 185명, 전주 95명, 평택 372명, 남양주 173명, 속초 101명, 경주 30명, 영천 117명, 진해 34명, 울산 2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시험장이 개설된 속초와 영천은 제3교구본사 신홍사와 종립

선화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각각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해 이목을 끌었다. 단체별로는 동대부고, 능인고, 동대부여고, 청담고, 동대부여중 등에서 높은 참가율을 보였으며, 광동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조종섭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사업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

불교환경연대 자원봉사자 이봉규



“사업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동안 욕심의 세계에 살았다면 지금은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작은 생명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씨는 2009년 11월부터 불교환경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 업무지원과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돕기도 한다. 은퇴 후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고민하던 이봉규씨는 희망제 작소에서 개최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녹색연합에서 현장 실습까지 마쳤다. 실습이 끝난 뒤 2개월 간 불교환경연대에서의 인턴 활동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한식구체팀 지내고 있다.

“처음 왔을 때 수경 스님과 함께 4대강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업 은퇴 후 봉사 참여해 적극적 활동 상근자 수준 불자들 화합정신 강화해야 환경불교 중요성도 강조

모래와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는 그는 이 씨에게 지을 스님은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보고 있었을 뿐 모래 위의 작은 발자국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 했던 것이다.

이 날 이후 이봉규씨는 환경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자원봉사자로서도 한 층 분발하게 됐다.

이씨는 4대강 개발 사업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이봉규씨는 “4대강 개발을 통해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성찰이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갈수록 봉사의 참맛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면서 봉사에 중독되고 있다.

이봉규씨는 1년에 한 명이라도 불교환경연대의 후원자로 만들겠다는 원을 세우고 실천 중이다. 사업 할 때 말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서 환경과 불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 및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가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작은 힘이거나 보태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봉사자로 남고 싶습니다.”

이봉규씨는 언젠가 지을 스님과 낙동강을 방문했다. 낙동강의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지을 스님의 내상전 전시회를 위해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봉규씨는 자원봉사자라고 스스로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있다. 또한 불자들에게 환경과 사찰립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숲 해설가 교육을 신청해 전문적 소양도 쌓고 있다.

이봉규씨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자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은 불자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불자들이 회향의 정신을 강화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봉규씨는 언젠가 지을 스님과 낙동강을 방문했다. 낙동강의

만남의 칠석에서 보냄의 백중까지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견우 직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하는 칠석과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이 있는 8월 6~14일을 생사참구(生死參究) 주간으로 정하고 법회를 연다.

6일 칠석에는 목청배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만남의 오만가지 인연’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7~13일에는 법현 스님 지도로 생

사참구 정진기도가 봉행된다. 14일 백중에는 선원장 법현 스님이 ‘말경도로 본 생사참구’를 주제로 회향법문을 한다.

선원장 법현 스님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괴로움, 죽음이란 필연적인 일대사에 대해서, 참구·명상을 통해 생사의 인연·의미를 찾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02)386-4755 조종섭 기자

도심사찰에서 템플스테이로 여름나기

길상사, 여름 수련회 개최

여름철을 맞아 도심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불교체험 수련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길상사에서는 7월 22~23일, 25~27일에 걸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길상사 템플스테이 관현준 팀장은 “어린이 수련회는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라고 말했다.

관현준 팀장은 “어린이 수련회는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익히고, 음식 개선과 성격이 활발해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향이다. 매년 참가자 중 40% 정도가 재참가를 한다”고 밝혔다.

길상사 어린이 여름 수련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위주로 진행한다.

길상사는 작년까지 1~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시켰다. 저



길상사 어린이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학년은 1박 2일 과정으로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며, 고학년은 자연 체험놀이, 비누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장기자랑 등을 진행했다.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김도형(13)군은 “더운 여름날 물총 쏘기 등을 참가자 친구들과 함께 하니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서영(12) 양은 “땀이 좀 흘리기는 하지만 수련회에 참가해 보니 즐겁고 보람있었다”며 “다음 수련회에도 참가 싶다”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현장 지도를 직접 맡았던 박은

선(22) 씨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많은 걸 느끼게 된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 적용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 팀장은 “수련회’라는 명칭이 아이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내년에는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길상사는 청소년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02)3672-5945-6 이은정 기자

민화협, 대북 식량 지원 재개키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이 허용되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번엔 전달된 식량은 한국JTS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민화협은 북한 사리원시 주민을 위한 밀가루 1차분 3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7월 26일 지원했다.

민화협은 8월 초순부터 2~3차례에 걸쳐 사리원시를 직접 방문해 타카소, 유치원, 소학교 등에 대

한 밀가루의 분배과정과 분배결과를 확인한 계획이다.

민화협은 6월 경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갖고 사리원시 주민들에 대해 밀가루 2500톤 지원에 앞서 5월 2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JTS,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어린이재단, 한국대학생선교회 등 대북 지원 단체들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기범 기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 (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현공풍수 지리학
양군송 삼합수법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 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